

특 허 심 판 원  
제 9 부  
심 결

심 판 번 호 2017당432

사 건 표 시 특허 제1480272호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의  
권리범위확인(적극)

청 구 인 (주)피스월드  
서울 서초구 논현로 5길 14, 1, 2층 (양재동)  
주식회사 에어쿡  
경기 하남시 하남대로 76, 에이동 101, 102호 (상산곡동)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리사 박희영, 김충호  
대전 유성구 테크노중앙로 72, 8층 801호  
(관평동, 대덕신대륙프라자)(기림특허법률사무소)

피 청 구 인 신동수  
서울 중구 난계로 197 (황학동)  
대리인 변리사 이덕록, 구창모, 이우진  
서울 강남구 논현로94길 13, 예일패트빌딩 (역삼동)  
(예일국제특허법률사무소)

심 결 일 2018. 2. 26.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청 구 취 지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 제1480272호의 청구범위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심판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1. 기초사실

특허 제1480272호(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의 청구 경위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절차의 경위

- ① 발명의 명칭 :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
- ② 출원/출원번호 : 2014. 4. 28. / 제10-2014-50498호
- ③ 등록/등록번호: 2015. 1. 1. / 특허 제1480272호
- ④ 권리범위확인(적극)심판 청구 : 2017. 2. 16.
- ⑤ 심판청구보정서 : 2017. 3. 3.
- ⑥ 보정요구서 : 2017. 8. 14.
- ⑦ 심판청구서등 보정(확인대상발명의 보정) : 2017. 10. 16.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갑 제2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특허공보, 주요 도면은 [별지 1]과 같다)

청구항 1.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되는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도록 상기 테이블의 상판 위에 올려지며, 음식물이 수용되도록 오목한 형상으로 되는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저면에서 35mm ~ 50mm 사이의 높이 내면에 돌출 형성되며,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갈수록 하측 방향으로 경사지게 기울어져 형성되는 결림단; 자장에 의해 자기 유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내부 결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내부에 삽입 결합되며, 가장자리에는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는 금속제 내부판체;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이하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상면 테두리에는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

\* 나머지 청구항은 이 사건 심판과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 생략

#### **다. 확인대상발명**

(1) 2017. 3. 3. 심판청구보정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이하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2) 2017. 10. 16. 심판청구서등 보정서에 첨부된 확인대상발명(이하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이라 한다)의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 **라. 실시주장발명**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은 용기 위에 올려놓고 버너로 물받이 용기를 직접 가열하여 불판이 간접 가열되는 방식으로 인덕션 렌지가 아닌 직화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것이고, 용기의 재질은 철판이며, 중심부 관통공에 손잡이 철사의 길이를 삽입하여 가열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고, 불판의 구조에 있어서도 가장자리 통수구가 없는 구조를 가진다.

#### **마.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을 제2호증)은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332180호(2003. 11. 7. 공고)의 ‘훈증기능의 배기부를 가지는 불판’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을 제3호증)는 등록실용신안공보 제20-0191921호(2000. 8. 16. 공고)의 ‘고기구이판’에 관한 것이다.

## 2. 당사자의 주장

### 가. 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과 그 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목적의 특이성이나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2) 청구인은 2017. 6. 30. 피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풍년종합기물상사에서 구입한 불판, 거래명세서 및 명함을 촬영한 사진(갑 제3호증)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의 불판을 현재 실시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장래에도 계속하여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나. 피청구인의 주장 요지

(1)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등록디자인 제30-0878760호(을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버너로 물받이를 가열하여 간접 가열하는 직화용 고기 구이용 불판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자기, 유리 등 비철금속제 용기 내부에 금속제의 용기를 결합한 인덕션 렌지용 조리용기에 관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은 확인대상발명과 목적, 구성 및 효과에서 전혀 다르다.

(2)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실시할 의사도 전혀 없으며, 갑 제3호증 물품 구입거래증명서 및 카드 영수증이 피청구인의 디자인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과거에 구입한 확인대상발명 물품에 대한 것인지 또는 타 영업장의 물품인 것인지 부지이고, 확인대상발명이 피청구인의 등록 디자인인지 2017. 6. 30. 청구인 의견서에 첨부된 도 1 또는 도 2 중 어느 불판으로 특정된 것인지 알 수도 없다.

(3)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의 가열판의 중심에서 방사상으로 천설된 관통공 및 하부용기의 상부 테두리가 외측으로 절곡된 구조는 비교대상발명 1, 2와 동일한 것이다.

### 3. 청구인 적격

청구인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갑 제1호증,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등록원부 참조)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특허권자에 의한 적법한 청구로 인정된다.

### 4. 판단

#### 가.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보정이 적합한지 여부

##### (1) 판단기준

특허법 제140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요지의 변경을 쉽게 인정할 경우 심판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피청구인의 방어권행사를 곤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그 보정의 정도가 청구인의 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도면 및 설명서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이거나 처음부터 당연히 있어야 할 구성부분을 부가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된다면 이는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3후192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 보정사항   | 보정 전                                                                                                                    | 보정 후                                                                                                                                                               |
|--------|-------------------------------------------------------------------------------------------------------------------------|--------------------------------------------------------------------------------------------------------------------------------------------------------------------|
| 보정사항 1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 지거나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 있는 <u>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 재질</u> 로 형성된 하부 용기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 지거나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 있는 <u>비금속(non-metal) 재질</u> 로 형성된 하부 용기                                                          |
| 보정사항 2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u>걸림단</u>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며 상기 단턱은 상기 하부 용기 저면으로부터 25mm ~ 50mm 사이의 높이에 있는 <u>걸림단</u> |

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당 심판부의 지적(2017. 8. 14. ‘보정 요구서’ 참조)에 따라 2017. 10. 16.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살피건대, 보정사항 1은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 재질”의 기재를 “비금속(non-metal) 재질”로 보정한 것이고, 보정사항 2는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걸림단”의 기재를 “단턱이 형성되며 상기 단턱은 상기 하부 용기 저면으로부터 25mm ~ 50mm 사이의 높이에 있는 걸림단”으로 보정하였는바, 이는 하부 용기의 재질과 단턱의 높이를 보정한 것으로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주에서 보정을 한 것이어서, 보정사항 1 및 보정사항 2는 적법한 보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법 제140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140조 제2항 제3호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보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하에서는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을 확인대상발명으로 채택하여 살핀다.

## 나.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여부

### (1) 판단기준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할 정도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에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4후486 판결 등 참조).

###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용기는 ‘자기 또는 유리제’의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고,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하부용기는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로 형성된 것이어서, 당 심판부는 2017. 8. 14. 보정요구서에 의해 ‘확인대상발명에서 용기의 재질을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 재질로 기재하고 있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의 자기 또는 유리제와 대비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7. 10. 16.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하였다.

살펴보면,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은 그 종류가 광범위하여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에서 용기의 재질인 ‘자기 또는 유리제’와 대비할 수 없으므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인데,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은 오히려

한정하는 문구를 삭제하여 ‘비금속(non-metal)’으로 보정하였는바, 여전히 확인대상발명의 ‘비금속(non-metal)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라는 기재에서 비금속 재질은 그 종류가 광범위하여 어떤 재질과 대비할지 택일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에 기재된 하부 용기의 재질이 이 사건 제1항 특허발명 및 그 구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제2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다.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 (1) 판단기준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한편,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 (2) 구체적 판단



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비금속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와 인덕션 렌지에 의한 자기유도가열이 가능한 금속제 내부 판체로 이루어지는 구성을 포함하는 사진을 포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장래에도 실시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하면서, 자신이 실시하고 있는 것은 디자인 제30-878760호(을 제1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용기 위에 올려놓고 버너로 물받이 용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에 의해 인덕션 렌지가 아닌 직화로 고기를 굽는데 사용하는 것이며, 중심부 관통공에 손잡이 철사의 길이를 삽입하여 가열판의 이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또한, 청구인은 갑 제3호증인 ‘피청구인이 판매중인 불판 및 구입증명자료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갑 제3호증 물품 구입거래증명서 및 카드 영수증이 피청구인의 디자인 물품을 구입한 것인지 과거에 구입한 확인대상발명 물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타 영업장의 물품인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당 심판원은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실시제품에 해당하는 것(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불판, 2017. 6. 30. 의견서 4면 참조)이 피청구인의 영업장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는지 혹은 제조하고 있는지를 입증하고, 실시제품이라 주장하는 제품 용기의 성분분석표의 제출을 요구(2017. 8. 14. 보정요구서 참조)하였으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다.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갑 제3호증만으로는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청구인의 실시제품은 그 용기의 성분을 알 수 없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확인대상발명은 인덕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비금속 재질로 용기를 형성하는 것인 반면,

피청구인의 실시주장발명은 직화 방식에 사용 가능한 첼제로 용기를 형성한 것이어서, 확인대상발명과 실시주장발명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도 없고, 이를 인정할만한 다른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발명을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입증을 다 하지 못한 이상,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 소결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대상발명을 이 사건 제1항 및 제2항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고, 피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특허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 5.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

심판장

심판관

박형식

백정식 

주 심

심판관

권기원

권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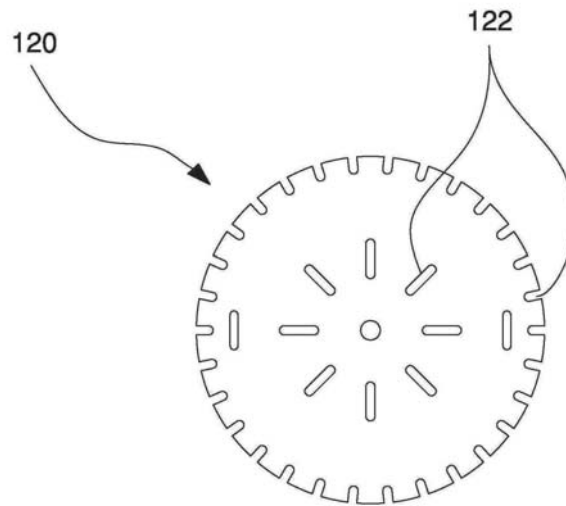
심판관

한충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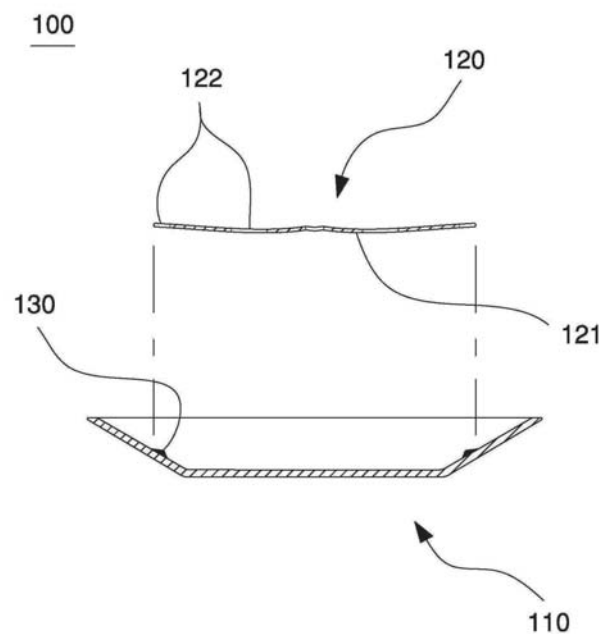
한충희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주요 도면

[도 2] 본 발명에 따른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 중 금속제 내부판체의 평면 예시도



[도 3] 본 발명의 일 실시예에 따른 인덕션 렌지용 조리 용기의 분해 단면 사시도



<주요 도면 부호>

100: 조리 용기    110: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120: 금속제 내부판체  
121: 오목부    122: 통수구    130: 걸림단

## [별지 2]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

#### 2. 설명서

확인대상발명의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는 아래 도 1 및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덕션렌지에 의한 자기유도가열이 가능한 금속제 내부판체(도 1 참조)와,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를 지지하며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도 1 및 도 2 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비금속 재질의 하부 용기는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의 자기유도가열을 위해 사용되는 인덕션렌지의 종류에 따라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져 사용될 수도 있고,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하부 용기는 내측이 하방으로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면 테두리는 대략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걸림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는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하부 용기의 상기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상기 하부 용기의 내부에 결합됩니다. 또한,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의 가장자리 부근에는 기름이 상기 하부 용기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습니다.

### 3. 도면

[도 1]



[도 2]



#### 4. 특허발명과의 대비표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라는 점에서는 이건 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동일하며, 그 세부 구성의 대비에 관해서는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건 특허 | 이건 특허의 구성                                                                                                       | 확인대상발명 구성                                                                                                        | 대비 결과  |
|-------|-----------------------------------------------------------------------------------------------------------------|------------------------------------------------------------------------------------------------------------------|--------|
| 청구항 1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되는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도록 상기 테이블의 상판 위에 올려지며, 음식물이 수용되도록 오목한 형상으로 되는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지거나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 있는 세라믹, 합성수지 등의 비금속(non-metal)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    | 동일     |
|       |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저면에서 35mm ~ 50mm 사이의 높이 내면에 돌출 형성되며,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갈수록 하측 방향으로 경사지게 기울어져 형성되는 걸림단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걸림단 | 실질적 동일 |
|       | 자장에 의해 자기 유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내부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내부에 삽입 결합되며, 가장자리에는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는 금속제 내부판체 | 상기 하부 용기의 상기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상기 하부 용기의 내부에 결합되며, 가장자리 부근에 기름이 상기 하부 용기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는 금속제 내부판체      | 동일     |
| 청구항 2 |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상면 테두리에는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 형성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가 대략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된 형태로 형성                                                                | 동일     |



## [별지 3] 보정 후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

### 【특허발명과 대비될 수 있는 설명서 및 필요한 도면】

#### 1. 확인대상발명의 명칭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

#### 2. 설명서

확인대상발명의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는 아래 도 1 및 도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덕션렌지에 의한 자기유도가열이 가능한 금속제 내부판체(도 1 참조)와,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를 지지하며 비금속(non-metal)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도 1 및 도 2 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비금속 재질의 하부 용기는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의 자기유도가열을 위해 사용되는 인덕션렌지의 종류에 따라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져 사용될 수도 있고,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기 하부 용기는 내측이 하방으로 오목하게 형성되어 있으며, 상면 테두리는 대략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된 형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어 있는 걸림단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상기 걸림단의 단턱은 상기 하부 용기 저면으로부터 25mm ~ 50mm 사이의 높이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는 도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기 하부 용기의 상기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상기 하부 용기의 내부에 결합됩니다. 또한, 상기 금속제 내부판체의 가장자리 부근에는 기름이 상기 하부 용기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습니다.

### 3. 도면

[도 1]



[도 2]





#### 4. 특허발명과의 대비표

인덕션렌지용 조리용기라는 점에서는 이건 특허와 확인대상발명이 모두 동일하며, 그 세부 구성의 대비에 관해서는 아래 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이건 특허 | 이건 특허의 구성                                                                                                       | 확인대상발명 구성                                                                                                                                                   | 대비 결과  |
|-------|-----------------------------------------------------------------------------------------------------------------|-------------------------------------------------------------------------------------------------------------------------------------------------------------|--------|
| 청구항 1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되는 인덕션 렌지와 이격되도록 상기 테이블의 상판 위에 올려지며, 음식물이 수용되도록 오목한 형상으로 되는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 테이블의 상판 아래에 설치된 인덕션렌지와 이격되어 테이블 상판에 놓여지거나 인덕션렌지 위에 직접 올려져 사용될 수 있는 비금속(non-metal) 재질로 형성된 하부 용기                                                             | 동일     |
|       |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저면에서 35mm ~ 50mm 사이의 높이 내면에 돌출 형성되며,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갈수록 하측 방향으로 경사지게 기울어져 형성되는 걸림단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의 상기 받침단 바로 내측 위치에, 상기 하부 용기의 내면으로부터 돌출되어 형성되고 상면이 외측에서 내측으로 가면서 하측 방향으로 층이 지도록 단턱이 형성되며 상기 단턱은 상기 하부 용기 저면으로부터 25mm ~ 50mm 사이의 높이에 있는 걸림단 | 실질적 동일 |
|       | 자장에 의해 자기 유도되도록 하기 위하여 상기 용기의 내부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 내부에 삽입 결합되며, 가장자리에는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는 금속제 내부판체 | 상기 하부 용기의 상기 걸림단 상면에 거치되어 상기 하부 용기의 내부에 결합되며, 가장자리 부근에 기름이 상기 하부 용기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하는 통수구가 관통 형성되어 있는 금속제 내부판체                                                 | 동일     |
| 청구항 2 | 상기 자기 또는 유리제 용기의 상면 테두리에는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 형성                                                                | 상기 하부 용기에서 상면 테두리가 대략 수평 형태의 받침단이 외측으로 절곡된 형태로 형성                                                                                                           | 동일     |